

대전지부 소개

백영기*
(*대전지부장)

대전전지부는 대한전기학회 창립이후 1965년 5월 29일 선두로 발족한 이래 올해로 2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지부로써, 초대 배상환 지부장으로부터 유해경, 신지수, 임대철, 전승구, 강명식, 이은용, 양재면, 남정일, 박상기, 노제화 지부장을 거쳐 백영기 지부장에 이르는 동안 회원의 수만도 350명이 넘는 큰 지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단체인 대덕연구단지 중심에 충남권 전역에 걸쳐 15개가 넘는 대학, 기업체 부설연구소등 친혜의 연구조건을 갖춘 대전지부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대한전기학회뿐만아니라 대전·충남지역의 전기부문 기술발전과 인재양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회원들의 연구활동 근황에 대한 기술정보교환의 장으로서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20여편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총 2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96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인 이주장 교수의 "발전기 여자계통을 가진 상호 연결된 다중전력계통의 모델링"과 순천양대학교 홍상은 교수의 "부하추종 특성과 순동예비력을 고려한 동적 경제급전 제어방식"의 다수의 논문이 발표 및 토론되어 한국전기분야의 첨단기술발전과 기술보급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부회원의 연구활동도 활발하여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부이면서도 전기학회 산하 어느 연구회 못지않게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부는 정기총회에서 배



그림 1. '96년도 대한전기학회 대전지부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전경

년 한해동안 지부회원이 발표한 논문중에서 엄선하여 가장 우수한 연구회원과 유공회원에 논문상과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발전에 청량제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논문지에 게재되는 편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고 특히, '97년 용평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는 194편이 발표되어 지부회원의 연구활동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과 전기학회 및 전세계에서 수행 중인 연구활동 등을 지부소식지에 실어 지부회원에 알려 회원의 연구와 학회활동에 동기를 부여한 결과이기도 하며, 동시에 대한전기학회와 연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지부회원 모두가 합심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을 예측건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대전·충남권의 발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명실공히 여타 지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부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1988년부터 지부활동의 폭을 넓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학술발표회 위주에서 산업현장견학에서 얻은 지식을 학술연구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에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연례행사화하였다. 그동안 지부에서 추진한 산업현장견학은 다음과 같다. 1988년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발전설비를 직접 견학함으로써 전체 발전원의 26%를 점유하는 원자력발전의 기본원리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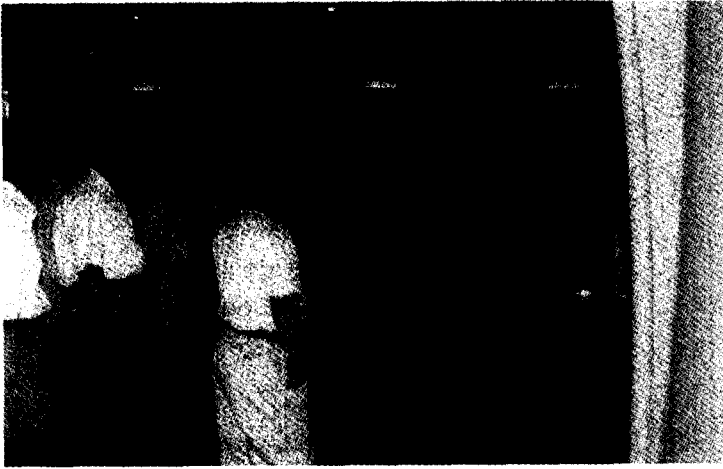


그림 2. '97년도 대한전기학회 대전지부 삼성전자 산업설비 현장견학 전경

1989년에는 서천화력과 보령화력을 방문하여 전력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었다. 전력계통의 남북조류제어에 기여하고 있는 무주양수발전소 견학을 통해서도 수력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계통안정화 운용을 도모하는 기술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한편, 1993년에는 고장 765kV 실규모 실증시험장을 견학하여,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송전기술의 발전과 연구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고장 시험장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1단계 765kV 상용선로 공사를 2001년에 마친다고 하니, 우리나라 송전기술의 발전 현황을 몸으로 느끼는 현장체험의 기회를 회원에 제공하여 한발짝 앞서가는 지부가 되었다. 또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삼랑진양수발전소, 소양강수력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 신옥천변전소, 용담다목적댐 건설현장, 보령댐건설 현장 방문등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전국에 산재한 산업설비를 직접 견학함으로써 전기기술 및 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 기술자의 땀방울을 보고 우리 대전지부회원들 모두는 각자의 해당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금년에는 대형전력설비와 관련된 현장견학에서 벗어나 국내최고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전시관 및 역사관을 관람하고 영상 자료를 시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기전자기술발전의 미래상을 전망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당 지부는 지부회원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기인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전기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학술강연회를 '8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92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위원인 이창건박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과 그에 관련된 주변기술의 연구 방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장두환 연사의

"대전 엑스포 '93"이라는 주제의 특별초청강연을 통하여 대전에서 개최하는 엑스포에 대한 비디오회상영과 아울러 엑스포 개최를 위한 진행상황 및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서의 향후 기대효과를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94년에는 호서대학교 강석규 총장을 초청하여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95년에는 김성년박사를 모시고 최초의 국산 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하여 운전 현황과 이용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96년에는 이은웅 충남대 공과대학장의 "전기의 역할과 전기인의 긍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는 전기의 정의, 전기의 역사, 전기의 역할, 전기의 기능, 전기의 특성 및 전기인의 위상 등을 설명하고 대전지부회원들도 전기기술을 발전시켜 인류에 공헌할 것을 당부하였다. '97년에는 한국전력의 김세일 송변전처장을 초청하여 "송

변전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갖임으로써 송변전기술에 대한 이해를 더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끝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대한전기학회의 새로운 변모를 주도하고 있는 학회장님과 집행부 및 위원회의 추진 의지에 부응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전기학회지의 "지부 및 연구회 소식"란에 지부중 제일로 대전지부가 등재하게 되어 지부회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전기학회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함께 전합니다.



그림 3. '96년도 대한전기학회 대전지부 학술강연회 전경

< 대전지부 활동 사항 >

○ '97 주요사업 실적

-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11월 개최 예정)
- 학술강연회 및 체육대회(10월 25일 충남대학교 개최)
 - 주제 : "한전 송변전기술의 현황 및 전망"
 - 연사 : 김세일(한국전력공사 송변전처장)
- 산업현장견학(6월30일 삼성전자 수원공장 견학) 등

○ 지부임원 명단

- 지 부 장 : 백영기(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장)
- 감사이사 : 신대철(호서대학교 교수)
- 자문위원 : 이은웅(충남대학교 공대학장)
- 자문위원 : 전승구(대전산업대 교수)
- 자문위원 : 강명식(대전산업대 교수)
- 지부이사 : 최수현(에너지기술연구소 센터장)
- 지부이사 : 김진중(충남대학교 교수)
- 지부이사 : 이주장(과학기술원 교수)
- 지부이사 : 장석구(대전산업대학교 교수)
- 지부이사 : 홍상은(순천향대학교 교수)
- 지부이사 : 이훈구(충남전문대학교 교수)
- 지부이사 : 김덕성(천안공업전문대학교 교수)
- 지부이사 : 이무일(진산고등학교 교사)
- 지부이사 : 남장수(원자력 환경기술원 기술관리실장)
- 지부이사 : 박찬빈(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 지부이사 : 홍종명(한국수자원공사 대청사무소장)
- 지부이사 : 권태원(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 부처장)
- 지부이사 : 정연평(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부지사장)
- 지부이사 : 추진부(전력연구원 차세대전력전송그룹장)

○ 대전지부 회원현황

- 총 357 명(중신회원 : 106명, 정회원 : 232명, 준회원 : 19명)

○ 대전지부 소속 기관

- 한국전력공사, 충남대학교, 대전산업대학교,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충남전문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주대학교, 삼성중공업, 천안공업전문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남서울산업대학교, 럭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소, 한국통신선로기술연구소, 한국통신중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현대정유, 한국원전연료,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대석유화학(주)등



백영기(白榮基)

1942년 2월 9일생. 1965년 중앙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70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1980년 발송배전 기술사. 현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 실장.